# 민주, 전남 시장·군수 경선 후유증 폭발

## "권리당원 누락·중복투표 … 여론조사 왜곡"

### 구례·강진·장흥·함평 등 6곳서 재심 신청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역 시장·군수 경선 결과, 현역 단체장 낙마 등 이변이 속출하면서 후유증이 커지고 있다. 신인 가점이 위력을 발휘, 원점수가 뒤집히면서 탈락한 후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경선이 치러진 13곳 중 절반 가까운 6곳에서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지역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경선 결과에 불복, 6명의 후보가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들은 "경선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창호 구례군수 탈락 후보는 수십명의 권리당원이 선거인단에서 누락돼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보 측에서 파악한 선거인단 누락 권리당원 3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또 권리당원 25명은 중복 투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여론조사 투표에 모두 참여했다는 것이다. 1명이 2표를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는 "권리당원의 권리 박탈과 중복투표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됐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는 한편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여론조사가 경선 목적에 맞게 제대로 실시됐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달라며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선거인단 누락으로 인해 권리당원의 권리가 박탈돼 득표율이 왜곡됐고 중복 투표에 따른 공정성이 훼손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경선 결과에 대한 재심 신청과 함께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강진원 강진군수 탈락 후보와 김성 장흥군수 탈락 후보 측도 "수백건에 달하는 중복 투표가 이뤄졌다"며 경선 여론조사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강 후보 측은 자체 파악한 권리당원의 이중 투표 수가 100여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강 후보와 김 후보 측은 이중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경선 결과가 바뀔 수 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과 장흥지역 경선은 현직 군수가 탈당 전력으로 10% 감점을, 상대 후보는 정치신인 10% 가점을 받았고, 이를 반영한 결과 각각 7%포인트와 7.5%포인트 차로 현직 군수들이 낙마했다.

함평군수 탈락 후보도 재심을 신청했다. 함평군수 후보 경선에서 2위로 탈락한 박래옥 후보는 가점 적용 등이 부당하다며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박 후보는 47.62% 득표율을 기록해 김성모(48.96%) 후보에게 1.34%포인트 차로 고배를 마셨다. 김 후보의 정치 신인 가점(득표율의 10%)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박 후보도 대선 과정에서 포상을 받았으니 가점을 받아야 하는데 전혀 받지 못했다"며 "고령의 상대 후보에게만 신인 가점을 주는 것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일부 후보들이 재심 신청을 한만큼 중앙당 재심위에서 엄밀히 조사해 결론을 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민주당 지도부, 남북정상회담 시청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7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남북정상회담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삼석 민주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확정

### 평화당 이윤석과 세번째 맞대결…신안군수 후보 천경배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이 6·13 국회의원 재보선과 관련, 영암·무안·신안 재선거 후보로 서삼석 전 무안군수를 확정했다. 민주당은 또 신안군수 후보에 천경배 예비후보의 전략공천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27일 대리투표 의혹으로 발표를 보류했던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서삼석 예비후보를 이날 확정·발표했다. 지난 23~24일 일반인 안심번호 선거인단 ARS 투표로 진행된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경선 결과 서삼석 전 군수가 56.12%로, 43.88%를 얻은 백재욱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이겼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영암·무안·신안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대리투표 의혹이 불거지면서 발표를 보류했었다.

민주당은 "무안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전수 조사를 했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백재욱 후보 측이 제기한 의혹을 일축했다.

서 전 군수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면서 민주평화당 이윤석 후보와의 세 번째 맞대결을 벌이게 됐다. 이들은 지난 2012년과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경선에서 두 차례 맞대결을 벌였다. 2012년 민주통합당 경선에서는 당시 재선에 도전한 이 후보가 승리했고, 2016년 경선에서는 서 전 군수가 이 후보를 꺾고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었다.

1승1패의 결과를 안고 있는 이들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경선이 아닌 본선에서 맞붙게 돼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신안군수 후보로 천경배 예비후보의 전략공천을 의결했다. 천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상임 선대위원장 비서실 팀장, 추미애 대표 비서실 부실장 등을 지냈다. 신안군수 선거에는 민주평화당 고길호·김경화·정연선 예비후보 그리고 민주당 경선에서 배제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박우량 예비후보가 등록했다.

일찌감치 출마 채비를 마친 현직 군수(고길호), 전직 군수(박우량)와 후발 주자인 민주당 천 후보의 빅매치가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목포를 제외한 21곳 후보를 확정했다.

목포시장 후보는 김종식, 김한창, 조요한, 최기동 예비후보의 경선을 통해 결정된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민주 광주 남구청장 후보 김병내 단수 추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27일 6·13 지방선거 광주 남구청장 후보에 김병내(44)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단수 추천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확정·발표했다.

시당 관계자는 "김 후보의 단수 추천 사유는 '중앙당 공천심사기준 및 방법'의 단수 및 경선 후보자 선정기준과 방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단수 및 경선 후보자 선정 기준에 따르면 심사 총점이 1등 후보자와 2등 후보자의 차이가 20점 이상일 때, 여론조사(공천 적합도)에서 1등 후보자와 2등 후보자의 차이가 20% 이상일 때는 단수 추천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병내 후보자는 2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 김 후보를 단수 추천 의결한 것이라고 시당 관계자는 밝혔다.

김 후보는 광주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강운태 국회의원 보좌관, 광주시청 직소민원실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지내는 등 행정과 정당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 중앙선대위 조직운영지원팀장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을 역임해 여당과 청와대와의 인맥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세계수영대회 北 참가 유도할 것"

### 조직위 "관계기관 등과 협의… 전훈장소 제공"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북한 선수단 참가 및 이들을 위한 전지훈련 장소를 제공하기로 했다. 성사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에 나설 예정으로, 남북정상회담으로 성사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조영택 조직위 사무총장은 27일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 인터뷰실에서 대회 준비상황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갖고 "내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또한 "2019광주세계수영대회는 남북정상회담과 평창올림픽 등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그간의 노력이 활짝 꽃피우는 대회로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 사전 점검대회(테스트 이벤트) 때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고, 개최 도시인 광주에서 북한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단체 등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직위는 또 세계체육기자연맹(AIPS)과 협약식 체결을 통한 교류협력 강화 및 전 세계 150개국, 300여명의 국제스포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광주대회 소개 프레젠테이션 등을 통해 평화대회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할 계획이다. 앞서 지아니 멜로 AIPS 회장은 지난 2월 평창올림픽 당시 김일국 북한 체육상과 만나 북한 체육 기자들의 AIPS 재가입 방안을 논의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대상·절차 등 안내

### 국토부, 광주서 설명회

국토교통부가 27일 오후 LH광주전남지역본부 대강당(3층)에서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선정방향과 선정대상, 선정규모 및 절차 등 올해 선정계획 내용과 다양한 사업모델을 지자체에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울, 대전, 군산 등 4곳에서 설명회가 개최됐으며, 30일에는 부산, 대구, 경북 안동 3곳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다음달 2일에는 인천, 강원 춘천, 3일에는 경기 성남, 4일에는 제주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및 '2018년도 선정계획안'에 따라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청년창업을 지원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이 사업을 지자체에 제안하고,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국토부에 신청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사업별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국비를 지원하게 된다.

다음달 14일부터 6월 8일까지 약 4주간 '소규모 재생사업' 신청·접수를 받아 약 2주간 평가를 진행하며, 주거복지·일자리 창출 등 도시재생 뉴딜의 주요목표와의 연계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6월 말 최종 선정하게 된다.

또 지역의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도시재생 관련 민간 경제주체(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소셜벤쳐 등)를 육성하기 위해 '사업화 지원'도 강화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